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935-952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

한 혜 영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성인애착과 결혼 만족 간의 관계는 잘 증명되어왔으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혼 남성 150명과 여성130 명을 표집하여 이들에게 성인애착, 부부 조망수용, 갈등해결 효능감, 그리고 결혼만족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성인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은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애착의 두 차원과 결혼만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은 사람은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낮아 결혼불만족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성인애착, 부부 조망수용, 갈등해결 효능감, 결혼만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 02-820-5125 / FAX : 02-816-5124 / E-mail : hyunmh@cau.ac.kr

지난 10여 년간의 이혼율 증가는 심각한 가족해체로 이어졌다. 통계청(2004)에 의하면, 2004년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9.3%로서 11쌍 가운데 1쌍 꼴로 이혼하였다고 한다. 이혼은 이혼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장기간의 심리적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혼의 원인을 종단적으로 탐색한 여러 연구 결과 이혼의 가장 큰 예측요인 중 하나가 결혼만족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다(Gottman & Levenson, 2000).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의 전반적인 평가'(Fincham, 1998; Norton, 1983)로 정의할 수 있다. 결혼불만족은 결혼당사자와 그들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Gavazzi, Mckenry, Jacobson, Julian, & Lohman, 2000; Stack & Eshleman, 1998). 따라서 결혼만족과 관련된 문제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중요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지혜정, 2002; Baucom, Shoham, Mueser, Daiuto, & Stickle, 1998; Hahlweg, Markman, Thurmaier, Engl, & Eckert, 1998). 그러나 결혼과 가족은 행복과 부적응, 그리고 신체 및 정신재활의 원천이기도 한 중요한 심리학적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특히 임상 분야에서 가족치료 및 부부치료와 관련하여 결혼만족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실정 역시 미미하다(전영민, 2000).

지난 15년간 많은 연구에서 성인애착이 결혼만족을 잘 예측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애착은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로서 경험되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정의되며(Bowlby, 1988),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해 유아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을 포함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Bowlby, 1977).

이런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Mallinckrodt, 2000). 그리고 이 내적 작동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개인마다 애착 유형이 달라진다.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성인애착의 유형은, 성인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를 종합하고, Bowlby(1973)의 내적 작동모델을 체계화하여 자기와 타인에 대한 두 차원을 근거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통해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공포형으로 구분한 Barth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이다.

이후 계속된 연구에서는 불안과 회피라는 2개의 차원이 성인애착을 더욱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2개의 차원은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속한다. 불안 차원은 자기가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기표상 차원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불안차원이 높으면 친밀한 대상과 가까워지는 것, 수용되는 것, 지지 받는 것, 그리고 확신 받는 것에 대한 욕구 정도가 높다고 한다. 회피 차원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편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타인표상 차원과 관계가 있다. 회피 차원이 높으면 친밀함에 대해 불편해하고 독립성과 자기-개방이 높고, 비난의 느낌을 표현하는 정도가 높은 것과 관련된다. 불안차원과 회피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Breman,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

성격특성으로서의 성인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통제되어 특징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환경과 관계적 행동에 대한 지각, 기대, 그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서 성인애착은 성인관계 특히, 이성관계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94; Simpson & Rhole, 1998).

특히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인애착의 불안 차원이 높으면 스스로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해야한다고 느낀다. 따라서 재 확신 추구와 같은 과도한 근접성 추구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런 행동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끌어내게 하여 둘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또한 과거의 애착대상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내적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회의적이고, 타인이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하다.

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가 아무 것도 자신에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낮다. 때문에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에 불만과 절망을 느껴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게 되어 점차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서로에 대한 흥미나 만족이 적어지게 된다 (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 Lussier, Sabourin, & Turgeon, 1997).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가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었지만 성격 변인인 성인애착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결혼만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연결 기제를 밝히고, 그 기제에 개입함으로서 결혼만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연결 기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Osland, 2002; Davila, Bradbury, & Fincham,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그 중간 기제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결혼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결혼만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과 특정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인 갈등해결기술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결혼 관계 내에서 일반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방식이나 갈등해결방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단기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정은, 1999). 이에 대해 Fincham, Harold 그리고 Gano-Phillips(2000)는 결혼관계 내에서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 요인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 특성을 지닌 매개변인으로 일반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방식과 관련된 조망수용과 갈등해결방식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로 조망수용은 의사소통과 공감의 인지적 선행요인으로 의사소통행동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변인이다(Davis & Oathout, 1987). 조망수용은 '자신이 타인의 입장에 서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Long, 1990; 1993). 이러한 조망수용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Meeks, Hendrick, & Hendrick, 1998; Long, 1993).

특히, Long(1990)은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일반적 조망수용보다는 결혼관계 내에 있는 배우

자에 대한 조망수용이 결혼만족을 더 잘 예측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조망수용을 부부조망수용이라고 언급하며 '특별한 관계의 맥락 내에서 파트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했다. Long(1990)은 결혼관계에서 자신이 배우자의 조망을 잘 수용한다고 보고한 사람이 결혼만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eeks 등(1998)과 Osland(2002)도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부부조망수용척도를 사용하여 파트너에 대한 조망수용이 관계만족을 잘 예측함을 밝혔다.

두 번째로, Bandura, Adams 그리고 Beyer (1977)은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지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장면에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1982). 자기효능감은 새롭고, 예측불가능하며, 긴장과 위협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휘된다. 부부관계 내 결혼만족에서 긴장과 위협을 유발하는 상황 중 하나가 갈등상황이다. 갈등상황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갈등해결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갈등해결 효능감이다. 결국, 갈등해결에 대한 효능감이 낮으면 결혼불만족에 이르게 한다.

Bradbury(1989)는 갈등상황에서 기혼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감 척도를 개발했다. 그는 갈등해결효능감을 자신의 '파트너와의 갈등에서 자신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했다. 여러 연구결과(Fincham & Bradbury, 1987; Fincham et al., 2000), 기혼자의 갈등해결 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adbury, Fincham, 그리고 Beach(2000)의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에 대한 효능감이 현재 결혼만족과 12년 후의 만족을 예측했다. 또한 Arias, Lyons, 그리고 Street(1997)의 연구에서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여성의 갈등해결에 대한 효능감이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밝혔다.

앞에서 조망수용, 갈등해결 효능감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중요변인이라고 언급했는데,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은 성인애착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애착과 조망수용의 관계를 보면, 조망수용의 발달은 아동기 때 양육자와의 경험과 초기 동료와의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다(Mallinckrodt, 1998). 양육자의 반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은 아동이 공상놀이를 하는 능력의 발달을 촉진(Youngblade & Dunn, 1995)한다. 또한 애착안정은 탐색과 사랑(친밀감)의 애착 행동적 체계가 균형을 잡는 것으로 이론화되었다. 불안정애착은 이런 체계 간의 불균형 상태로 특징화되며, 이런 체계는 조망수용의 발달을 저해한다(Osland, 2000). 불안차원은 자기에 대한 부적 표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탐색보다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문제에 대해 과경계하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몰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애착의 불안차원이 높은 기혼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 감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탐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다.

회피차원은 타인에 대한 부적 표상과 관련되어 배우자와의 관계보다는 독립성과 탐색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탐색행위의 확신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려는 동기는 결핍되어 있다.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안정 애착된 사람은 균형이 잘 잡

힌 친밀감과 탐색의 애착체계가 그들 배우자의 경험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한다(Osland, 2002).

여러 연구(Greenberg & Mitchell, 1983; Mallinkrodt, 1992)에서 애착과 조망수용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Bekemdam(1997)은 가석방된 남성의 애착을 살펴보면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조망수용이 낮음을 밝혔다. Corcoran과 Mallinckrodt(2000) 역시 기혼자를 대상으로 애착의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이 일반적 조망수용을 예측함을 밝혔다. 그리고 Osland (2002)와 Shi(2003)는 연애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Long(1990)의 부부조망수용척도를 이용하여 성인애착이 파트너에 대한 조망수용을 예측함을 밝혔다.

둘째, 애착과 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은 가족과의 초기 경험으로부터 발달한다고 한다. 또한 Ainsworth(1982)와 Sarason(1990)도 아동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에 있을 때, 민감하고 반응적인 부모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고, 아동에게 감정적인 지지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며, 의미 있는 가치와 기준을 조성해준다. 이런 양육과정은 아동이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 새로운 기술의 습득, 환경에 대한 탐색, 신뢰감,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정애착을 하는 사람은 애착대상과 근접하고자 하고 확신을 갖고 지지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디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특히 애착대상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안정애착을 하는 개인은 디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고 외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위협적인 사건이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Hazan & Shaver, 1987). 결과적으로 안정애착을 하는 사람은 디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과 타인의 반응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효능감이 발달되었다(Shaver & Hazan, 1993). 또한 안정애착을 하는 사람은 디스트레스의 원천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rant, Mikulincer & Florian, 2001; Radecki-Bush, Farre, & Bush, 1993). 또한 Creasey와 Hesson-McInnis(200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상황에서 성인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은 사람이 갈등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간기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Osland(2002)와 Davila 등(1998)의 제안과 부부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온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이 지속적인 행동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결혼만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이정은, 1999), 그리고 결혼관계 내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이루기 위해 인지변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안수진, 1997; Fincham et al., 2000)을 토대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의 인지변인으로서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기

혼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여 총 280명(남성 150명, 여성 130명)이 표집되었다. 평균 연령은 남성이 37.71세, 여성이 36.35세였다. 결혼기간은 1년-32년(평균=10.24년)범위이며, 자녀는 57%가 2명이었다. 이들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남성(평균=4.85)이 여성(평균=4.6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27$, $p<.05$.

평가 도구

다항목 성인낭만애착검사(MIMARA: The Multiple-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등(1998)의 MIMARA를 강진경(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MIMARA는 원래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모델에 기초한 18문항씩 2개의 하부척도(회피차원과 불안차원)로 구성된 성인애착 질문지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강진경은 이를 요인분석하여 최종적으로 34문항의 질문지로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α는 회피차원이 .86이고 불안차원이 .80이다.

부부 조망수용 자기보고 척도(SDPT: The Self Dyadic Perspective-Taking Scale)

부부 조망수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Long와 Andrews(1990)가 개발한 SDPT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DPT는 13문항의 자기-보고질문지로 특별한 관계 맥락 내에 있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7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으면 배우자에 대한 조망수용이 높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α는 .88이다.

결혼효능감 검사(MEM: Marital Efficacy Measure)

갈등해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Bradbury(1989)가 고안한 MEM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EM은 자신의 파트너와의 갈등에서 자신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 척도는 7개의 진술문으로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예, "나는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높은 점수는 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반영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α는 .73이다.

부부관계 질 지표(QMI: Quality Marriage Index)

결혼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Norton(1983)의 QMI를 장춘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QMI는 결혼생활 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번 문항까지는 Likert 7점척도로써 1(매우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로, 6번째 문항은 10점 척도로써 1(절대적으로 불행하다) ~ 10(완벽하게 행복하다)으로 평가된다. QMI는 최저6점에서 45점의 분포를 이룬다. 높은 점수는 결혼만족이 높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α는 .91이다.

연구 절차

성인애착, 부부조망수용, 갈등해결 효능감, 그리고 결혼만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서울과 경기지역의 회사 6곳, 아파트를 중심으로 남녀 기혼자에게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수거는 응답자가 동봉된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연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했다.

자료 분석

자료는 SPSSWIN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MIMARA, SDPT, MEM, QMI의 신뢰도 검증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부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회귀분석은 남녀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고 각 변인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상관이 없었다. 애착의 불안차원은 부부 조망수용 r=-334, p<.01, 갈등해결 효능감 r=-464, p< .01, 그리고 결혼만족 r=-343,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의 회피차원도 부부 조망수용 r=-452, p<.01, 갈등해결 효능감 r=-505, p<.01, 그리고 결혼만족 r=-538,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부 조망수용은 결혼만족 r=563, p<.01과

표 2. 각 변인간의 관계

변 인	1	2	3	4	5
1. 불안 차원	-	.132	-.334**	-.464**	-.343**
2. 회피 차원	.172	-	-.452**	-.505**	-.538**
3. 부부 조망수용	-.412**	-.527**	-	.487**	.563**
4. 갈등해결 효능감	-.460**	-.541**	.471**	-	.558**
5 결혼 만족	-.404**	-.614**	.671**	.575**	-

**p<.01
주) 남성(대각선 위쪽), 여성(대각선 아래쪽)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

구분	남(150명)	여(130명)	전체(280명)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불안 차원	36.85 (8.07)	37.65 (7.68)	37.22 (7.89)	-.84
회피 차원	43.51 (9.83)	43.32 (10.72)	43.32 (10.24)	.16
부부 조망수용	46.65 (7.45)	46.35 6.32)	46.51 (6.93)	.37
갈등해결 효능감	34.50 (5.67)	3.61 (7.00)	34.09 (6.33)	1.16
결혼 만족	36.19 (6.74)	34.39 (6.75)	35.36 (6.80)	2.23*

*p<.05

유의한 정적상관을, 갈등해결효능감은 결혼만족 r=558,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도 상관이 없는 독립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불안차원은 부부 조망수용 r=-412, p<.01, 갈등해결 효능감 r=-460, p<.01, 그리고 결혼만족 r=-404,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의 회피차원도 부부 조망수용 r=-527, p<.01, 갈등해결 효능감 r=-541, p<.01, 그리고 결혼만족 r=-614,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부 조망수용은 결혼만족 r=671,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갈등해결효능감은 결혼만족 r=575,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부부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부부 조망수용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

표 3. 불안차원과 결혼만족에 대한 부부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단 계	종속변인	남성 결혼만족		여성 결혼만족	
		ΔR^2	β	ΔR^2	β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불안차원 → 부부 조망수용	.112	-.334***	.170	-.412***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불안차원 → 결혼만족	.118	-.343***	.163	-.40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불안차원 → 결혼만족 2) 부부 조망수용 → 결혼만족	.027 .227	-.174* .505***	.020 .306	-.154* .607***

*p<.05, ***p<.001

표 4. 회피차원과 결혼만족에 대한 부부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단 계	종속변인	남성 결혼만족		여성 결혼만족	
		ΔR^2	β	ΔR^2	β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회피차원 → 부부 조망수용	.204	-.452***	.278	-.527***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피차원 → 결혼만족	.289	-.538***	.377	-.61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회피차원 → 결혼만족 2) 부부 조망수용 → 결혼만족	.101 .129	-.356*** .403***	.094 .167	-.361*** .480***

***p<.001

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가 있다고 검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첫째,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립변인은 2단계에 비해 3단계에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거나(완전매개), 유의하게 낮아져야 한다(부분매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불안차원은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부부 조망수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도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도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부터 종속변인으로 가는 회귀계수가 두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유의하지만 더 적었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의 부부 조망수용은 불안차원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 4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부부 조망수용이 회피차원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분석절차는 다시 반복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 볼 수 있다. 남성은 2단계에서 불안이 결혼만족으로 설명하는 정도가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되어서 갈등해결 효능감이 불안과 결혼만족을 완전매개하였고, 여성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차원은 갈등해결 효능감은 결혼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지난 약 15년 동안 많은 연구에서 결혼만족

표 5. 불안차원과 결혼만족에 대한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단 계	종속변인	남성 결혼만족		여성 결혼만족	
		$\triangle R^2$	β	$\triangle R^2$	β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불안차원 → 갈등해결 효능감	.215	-.464***	.212	-.460***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불안차원 → 결혼만족	.118	-.343***	.163	-.40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불안차원 → 결혼만족 2) 갈등해결 효능감 → 결혼만족	.009 .293	-.107 .509***	.025 .192	-.177* .493***

*p<.05 ***p<.001

표 6. 회피차원과 결혼만족에 대한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단 계	종속변인	남성 결혼만족		여성 결혼만족	
		$\triangle R^2$	β	$\triangle R^2$	β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회피차원 → 갈등해결 효능감	.225	-.505***	.293	-.541***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피차원 → 결혼만족	.289	-.538***	.377	-.61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회피차원 → 결혼만족 2) 갈등해결 효능감 → 결혼만족	.008 .110	-.343*** .385***	.130 .083	-.428*** .343***

***p<.001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변인이 애착패턴임을 증명해왔다(Collins & Read, 1990; Feeney, 1999; Hazan & Shaver, 1994; Simpson & Rhole, 1998; Srouf et al., 1986). 그러나 성인애착이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Osland, 2002; Davila et al., 1998). 불안정 애착이 왜 결혼관계에서 만족이 적은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이 인지변인인 부부 조망소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검증하였다.

우선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인구통계변인과 결혼만족도간의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이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보다 낮았다. 이는 기존의 국내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이정은, 1999; 지혜정, 2002), 결혼불만족과 관련이 많은 우울증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게 진단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있어서 남녀 성차가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매개검증을 하였다.

첫째, 성인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부부 조망수용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애착의 불안차원이 높으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사랑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은 배우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대신 이들은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처럼 타인도 자신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타인이 거부하거나 버릴 것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혼관계에서 만족을 낮게 경험할 것이다.

애착의 회피차원이 높은 사람은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보다는 독립성과 탐색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탐색에서의 자신감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우자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

해하려는 동기는 결핍되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결혼만족은 적게 경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안과 회피차원인 둘 다 낮아 안정적인 애착을 한 기혼자는 결혼관계 내에서 배우자에 대한 관점과 입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이해와 수용의 과정이 선행이 되어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관계 내 오해와 긴장, 갈등과 불안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신뢰와 사랑, 그리고 이해의 관계로 확장되어 만족스런 부부 관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으면 배우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되거나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동기가 부족하여 배우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으로 결혼만족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 부부 조망수용이 애착과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조망 수용이 애착과 만족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 과정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인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갈등해결 효능감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으면 갈등해결 효능감이 낮아 결혼불만족에 이르게 된다. 즉, 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모두 낮은 안정된 개인은 애착대상과의 긍정적 상호작용동안 디스트레스의 표현과 인정(승인)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을 학습했고, 자신의 행동이 디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문제와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학습한다(Shaver & Mikulincer, 2002). 그러나 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으면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적어져 갈등을 부정적으로 해결하여 결혼만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다. 애착의 불안차원은 결혼생활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비애착적 욕구와 배우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환경탐색에 사용할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결혼생활에서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안정감을 얻기 위해 환경을 탐색하는 체계를 억제한다. 또한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갈등에서의 효능감 결핍으로 건설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관계의 악화를 경험할 것이고, 결국에는 결혼불만족에 이를 것이다.

애착의 회피차원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행동이나 능력에 보다 가치를 둔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대신 탐색체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갈등상황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도 못하고 자신을 지지해주지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효능감에 대한 동기는 결핍되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갈등상황에서 파괴적이고 방어적이며 자기보호적인 행동을 통해 비 건설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취해 결과적으로 결혼불만족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갈등해결 효능감이 애착과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해결 효능감이 애착과 만족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 과정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 해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애착과 만족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 과정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가나 임상가 그리고 부부문제를 겪고 있는 기혼자에게 개인이 결혼만족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성인애착과 관련하여 결혼만족을 연구한 결과는 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차원접근과 결혼만족의 단일접근을 사용하였다. 성인애착의 차원접근은 한 개인에게 있어 그 개인의 애착특성을 극적으로 단순화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고, 결혼만족의 단일측정은 피험자의 주관적인 경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본 연구와 같이 매개검증을 할 때에 매개변인의 문항과 중복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성인애착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자료가 축적 중이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없거나 개인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영아기 부터 중기 아동기를 통해 성인기까지의 애착이 지속된다(Coble et al., 1996). Bowlby(1977) 역시 자신의 애착패턴이 성인기에 바꾸는 것은 아마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따라서 성격변인인 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가 많이 지지되었더라도 애착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결혼만족을 높이는 것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애착을 변하시키는 노력을 하는 대신 상담가나 임상가가 인지변인인 배우자에 대한 조망수용과 갈등상황에서 갈등에 대한 효능감을 훈련시키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결혼생활의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Bagarozzi & Anderson, 1989; Mallinckrodt, 1996).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변인이 종단적 설계에 의해 시간순서로 측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true)" 인과성에 대한 추론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착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애착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부부관계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종단적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애착이 결혼만족에 있어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아니면 결혼만족이 있어서의 변화가 애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기각된 양방향 인과관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변인을 여러 시점에서 반복 측정할 필요가 있다(Karney & Bradbury, 1995). 또한 각 측정단계마다 변인을 반복해서 평가한다면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결혼의 특성과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 설계 사이의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과에 제시하진 않았지만 본 연구 결과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만족이 U자형 곡선을 이루었다. 이는 신혼기에 높았던 만족도가 첫아이 출생이후 감소하였다가 자녀의 성장 이후에 다시 높아진다고 한 정현숙(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결혼만족이 결혼주기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시기를 좀더 분명하게 하여 노년기를 포함한 여러 시점에서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인 간 관계를 반복 측정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빈민이나 혹은 생활유형이 다른 농어촌 부부, 그리고 노년기 부부에게까지 일반화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결혼주기에 따른 차이와 지역간 차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참가자는 정상인이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부부문제로 심리치료나 상담가를 찾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결혼중인 두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부부간 상호작용을 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비록 개별적 자료가 결혼에 관한 개인 내적인 지각을 탐색하는 데에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개인간의 결혼속성을 조사하는 데에는 두 배우자 모두로부터의 수집된 자료가 필요하다. 애착과 결혼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애착이 서로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신의 애착과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지변인인 배우자에 대한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이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매개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내의 만족과 애착에 관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많은 연구가 축적된다면 여러 매개변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면서 과정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공변량 구조모델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논문

강진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안수진 (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 : 책임귀인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검증.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정은 (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정현숙 (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전영민 (2000). 결혼 만족도 및 안정성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 적응 통합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지혜정 (2002).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심리 · 사회적 요인이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학원.

통계청 (2004). 2004년 혼인 · 이혼 통계 결과. 최신보도자료.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Arias, I., Lyons, C. M., & Street, A. E. (1997). Individual and marital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efficacy and spouse suppor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2),* 193-210.

Bagarozzi, I. D. A., & Anderson, S. A. (1989). *Personal, marital and family myths: Theoretical formulation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Norton.

Bandura, A. (1977).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Bandura, A. (1982). Self-efficac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Bandura, A., Adams, N. E., & Beyer, J. (1977). Cognitive processes mediating behavioral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125-13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arth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aucom, D. H., Shoham, D. H., Mueser, K. T., Daiuto, A. D., & Stickle, T. R. (1998). Empirically supported couple and family interventions for marital distress and adult mental heal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53-88.

Berant, E., Mikulincer, M., & Florian, V. (2001). The association of mother' attachment style and their relations to the diagnosis of infant's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208-232.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Bradbury, T. N. (1989). *Cognition, emotion, and interaction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Cobb, R. J.,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7(90),* 1131-1143.

Coble, H. M., Gantt, D. L., & Mallinkrodt, B. (1996). Attachment, social competency, and the capacity to use social support.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41-172)*. New York: Plenum.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orcoran, K. O.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78(4),* 473-483.

Creasey, G., & Hesson-McInnis, M. (2001).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nflict tactics i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1),* 85-96.

Davila, J., Bradbury, T. N., & Fincham, F. (1998). Negative affectivity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5,* 467-484.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Davis, M. H., & Oathout, H. A.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97-410.

Feeney, J. A. (1999). Adult attachment, emotional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6,* 143-159.

Fincham, F. D. (1998). Child development and marit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 543-574.

Fincham, F. D., & Bradbury, T. N. (1987). Cognitive processes and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ribution-efficac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06-1118.

Fincham, F. D., Harold, G. D., & Gano-Phillips, S. (2000).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Direction of Effects and Role of Efficacy Expect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2),* 267-285.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Gallo, L. C., & Smith, T. W. (2001). Attachment style in marriage: Adjustment and responses to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2),* 263-289.

Gavazzi, S. M., Mckenry, P. C., Jacobson, T. A., Julian, T. W., & Lohman, B. (2000). Modeling the effects of expressed emotion, Psychiatric symptomology, and marital quality levels on male and female verb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669-683.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Hahlweg, K., Markman, H. J., Thurmaier, F.,

Engl, J., & Eckert, V. (1998).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Results of a German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543-556.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Long, E. C. J. (1990). Measuring dyadic perspective-taking: Two scales for assessing perspective-taking in marriage and similar dyad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 91-103.

Long, E. C. J. (1993). Perspective-taking differences between high-and low adjustment marriages: Implications for those in interven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248-359.

Long, E. C. J., & Andrews. D. W.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131.

Lussier, Y., Sabourin, S., & Turgeon, C. (1997). Coping strategie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777-791.

Mallinkrodt, B. (1992). Chil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development of adult social competencies, and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53-461.

Mallinckrodt, B. (1996). Interpersonal processes, attachment, and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ies in individual and group psychotherapy. In B. Sarason & S. Duck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Clinical and community psychology.* New York: Wiley.

Mallinckrodt, B. (1998).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djustment of recently married coupl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293-307.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3),* 239-266.

Meeks, B. S., Hendrick, S. S., & Hendrick, C. (1998). Communication, lov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755-773.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Osland, J. A. (2002). *Theorical models of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path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at Albany.

Radecki-Bush, C., Farrel, A. D., & Bush, J. P. (1993). Predicting jealous reponses: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on threa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69-588.

Sanford, K. (1997). Two dimensions of attachment: Further valid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133-143.

Sarason, B. R., Pierce, G. R., & Sarason, I. G. (1990). Social support: The sense of acceptance and the role of relationships.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New York: Wiley.

Scharfe, E., & Barthlomew, K. (1994).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adult attachment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s, 1,* 23-43.

Scharfe, E., & Bartholomew, K. (1995). Accommodation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coup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389-401.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Psychodynamics of adult attachment: A research perspectiv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Shi, L.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3),* 143-158.

Simpson, J. A., & Rhole, W. S (1998).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Stack, S., & Eshleman, J. R. (1998).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17-n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27-536.

Winter, F., Ferreira, A., & Bowers, N. (1973). Decision-making in married and unrelated couples. *Family Process, 12,* 83-94.

Youngblade, L. M., & Dunn, J. (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pretend play with mother and sibling: Links to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 and beliefs. *Child Development, 66,* 1472-1492.

원고접수일 : 2005. 2. 26
게재결정일 : 2006. 8. 22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935-952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Efficacy -

Hye-Young Han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An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has been well documented. However, relatively few studies have examined processes by which adult attachment affects marital satisfaction. The present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dyadic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efficac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Data from samples of married males(N=150) and females(N=130) were used to test the hypothesis. Male and female completed surveys assessing their adult attachment, dyadic perspective taking, conflict resolution efficacy,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males and fema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nxious and Avoidant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predicted marit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Dyadic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two dimens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Namely, High levels of Anxious or Avoidant dimension were associated with marital dissatisfac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associated with low levels of dyadic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efficacy. Thi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unselors or clinicians might help them by improving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efficacy.

Keywords : adult attachment, dyadic perspective taking, conflict resolution efficacy, marital satisfaction